

Issue No.
2020-9
September 2020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인권위 소식

인권위,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예정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의 이행-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의 이행”을 주제로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와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합회의 및 웨비나회의로 병행추진하였으나, COVID-19 상황에 따른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강화로 일반 참가자는 온라인회의(웨비나-줌(Zoom), 유튜브 실시간스트리밍) 참석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웨비나 참석자는 실시간 청취 및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다. 2020년 9월 14일까지 <http://www.chd2020.or.kr> 에 방문하여 온라인 등록을 하면 참석이 가능하다. 유튜브 참석을 원하는 경우, 2020. 9. 17. 오전 10시~오후 6시 20분까지이며 이 시간대에 유튜브에서 '2020 혐오차별대응 국제콘퍼런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라고 검색하고 시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등록을 한 이후 콘퍼런스 참석이 가능하며 사전 또는 당일에 질문을 제시하면 발표자가 검토하여 당일에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시 간	프 로 그 램
09:30~10:00	등록
10:00~10:35	개회사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이몬 길모어 (Eamon Gilmore) EU 인권특별대표 미셸 바철허레 (Michelle Bachelet) UN 인권최고대표 (TBC) 이상민 국회의원 로살린 크로처 (Rosalind Croucher) APF(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
	기념사진 촬영
10:35~11:20	기조 발제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루이사 클링볼 (Louisa Klingvall) 유럽이사회 정책 책임자 마리아 웨스터그렌 (Maria Westergren) 제노사이드 방지 및 보호책임에 관한 UN 사무소

11:20~11:30	휴식
11:30~13:00	[세션 1] 혐오·차별 대응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정책동향
	[사회자] 조영숙 양성평등대사 [발표자] 세자르 카스텔랭 (César Castelain) 주한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 필립 터너 (Philip Turner) 주한 뉴질랜드 대사 신혜수 UN사회권위원회 위원 닉 메타 (Nik Mehta OBE)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
	질의응답
13:00~14:30	점심시간
14:30~16:20	[세션 2] 혐오·차별 대응기제로서의 평등법 추진의 성과와 도전
	[사회자]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자] 마리아 벤테고트 리스버그 (Maria Ventegodt Liisberg) 덴마크 인권위원회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은순 DIKE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레나 산테리니 (Milena Santerini) 유럽평의회 차별방지위원회 - 반유대 대응 국가 협력관 류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질의응답
16:20~16:30	휴식
16:30~18:05	[세션 3]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상에서의 혐오 표현 대응 정책
	[사회자] 존 보가어츠 주한 EU대표부 수석 참사 [발표자] 손정아 카카오 부사장 토락 맥고나글 (Tarlach McGonagle) 정보법 교수 / Leiden 대학교 언론법 • 정보학회 회장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파이비 콜피사리 (Paivi Korpisaari) 헬싱키 대학교 커뮤니케이션법 교수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질의응답
18:05~18:20	선언문 채택 - 폐회

APF 소식

대한민국 인권위원장, APF 연례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이 9월 9일 주최한 제25차 APF 연례회의에서 APF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거버넌스 위원회(Governance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APF 거버넌스 위원회는 APF 전략계획에 대한 총회 권고, 연간운영계획 채택, 전략계획 이행에 관한 감독 등 APF 주요 업무에 대한 권고 및 감독 업무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APF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은 APF 연례회의(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되며, 거버넌스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는데 A등급 국가 인권기구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과 함께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총 5개국의 국가인권기구 위원장 등이 2년 임기의 APF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었으며,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Rosalind Croucher)이 의장으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최영애)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최 위원장의 APF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 진출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연합체의 정책적 의사 결정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태 지역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또한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APF 부의장 및 거버넌스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집행이사회 아태지역 APF 대표 기구(2020년~2023년)를 맡고 있으며, 2019년 제24차 APF 연례회의에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에 재선출되어 2020년~2022년 6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인권분야 국제 교류협력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APF 연례회의에서는 국가인권기구 내 성평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현황 및 촉진 방안 논의를 비롯해 APF 연간(2019. 7. ~ 2020. 6.) 성과보고 및 회계 승인, 제26차 APF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개최지 선정 등 안건이 논의되었다.

유엔 소식

첫 번째 국제교육보호의 날을 맞아 고위급 온라인 회의 개최

오늘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분쟁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교육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없다. 교육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은 학대, 착취, 신병모집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학교는 아동을 위협과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는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학생과 교육자들을 위해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2020년 5월 유엔총회는 매해 9월 9일을 국제 교육 보호의 날(International Day to Protect Education from Attack)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올해 9월 9일 그 첫 해를 기념하는 고위급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입안자, 홍보대사, 시민사회 대표들은 “교육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코로나19 시대에 효과적인 정책결정과 공적대응을 촉진하는 방법”을 주제로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고위급 온라인회의는 카타르 정부가 유니세프, 유네스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Above All)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 피터 마우러 (Peter Maure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총재,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분쟁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테레스 유엔사무총장은 “교육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금지하는 기존의 국제협약을 모든 회원국들이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학생들이 성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교육기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분쟁상황에서도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난민, 이주민 같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thepeninsularqatar.com/article/10/09/2020/Glob-al-leaders-call-for-end-to-attacks-on-education>

<http://www.un.org/en/observances/protect-education-day>

인권 NGO 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소셜미디어 기업의 혐오 표현 삭제정책, 잔혹범죄 증거 없앨 우려 있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테러집단이나 폭력적 극단주의자가 게시했거나 혐오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쟁범죄를 포함한 심각한 범죄의 조사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9월 9일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전쟁범죄 증거 삭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중대범죄의 잠재적 증거를 보관하는 독자적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국제적 조사와 비정부 기구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7년부터 인권단체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삭제와 관련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기록보관담당자, 통계학자, 언론인, 국제재판소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검사, 국내 법집행관, 유럽연합 소속 직원, 유럽의회 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또한 2020년 5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에 삭제된 콘텐츠를 기록보관 목적으로 다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침해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한 콘텐츠를 유지, 보관하는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 법집행관이 체포영장, 소환장, 법원명령 등을 이용하여 소셜미디어 기업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조사관의 경우는 법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이와 같은 콘텐츠를 보관하기 위한 독자적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서보관공간이 마련된다면 연구 및 조사 목적으로 콘텐츠를 분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기존의 삭제절차와 관련해서 알고리즘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스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편향적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콘텐츠 삭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http://www.hrw.org/news/2020/09/10/social-media-platforms-remove-war-crimes-evidence>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